

‘가상 결혼’ 이어 ‘가상 별거’ 뜬다

‘별거가 별거냐’·‘졸혼수업’ 등

케이بل·지상파 예능 잇따라 등장

‘빨 빠른 베끼기’ 의혹에도 인기

관찰 예능 흥수 속에 이번에는 부부를 별거시키는 예능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결혼했어요’가 스타들의 ‘가상 결혼’을 다룬 것과 정반대로, 실제 스타 부부를 일정기간 ‘가상 별거’ 시키는 콘셉트의 예능이 두달 새 3편이나 등장했다. 심지어 이종 두 프로는 방송 시간마저 맞붙는다.

‘빨 빠른 베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지만, 세 프로 모두 출연자들에게 대한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시작은 지난 4월1일 첫선을 보인 E채널 ‘별거가 별거냐’(토 밤9시20분). 스타 부부의 공개 별거 리얼리티 예능인 이 프로그램에는 배우 남성진-김지영 부부, 배우 이철민 부부, 배우 사강 부부가 출연해 몇 주간 별거를 하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긴다.

‘별거가 별거냐’는 E채널 최고의 히트작이 됐다. 시청률 1% 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E채널에서 1%를 넘어섰다. E채널은 “‘별거가 별거냐’ 방송 전에 비해 E채널의 전체 시청률이 무려 24%포인트 상승했다”며 “12주로 계획했던 시즌1을 1주 더 늘려 13주로 방송하고, 9월에 시즌2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작한 MBN ‘따로 또 같이 부부라이프-졸혼수업’과 21일 시작한 SBS TV ‘싱글 와이프’는 모두 ‘별거가 별거냐’의 유사 상품이다. 심지어 두 프로그램은 수요일 밤 11시에 나란히 방송된다.

‘졸혼수업’에는 배우 조민기 부부와 배우 김정현 부부가 출연한다. ‘별거’라는 단어 대신 ‘졸혼’을 내세웠을 뿐, 콘셉트는 똑같다. 미리 졸혼 생활을 체험해본다는 취지로, 365시간(15일) 동안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구성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올로 하우스’가 등장한다. 졸혼 체험을 할 공간에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올로’(YOLO, You live only once)를 이름으로 붙였다.



‘싱글 와이프’에는 ‘아내들의 낭만 일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집을 떠나는 ‘특권’(?)은 아내에게만 주어졌다.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안식 휴가’를 선물하는 콘셉트로, 개그맨 남희석 부부, 배우 서현철-정재은 부부, 가수 김창렬 부부, 배우 이진희-전혜진 부부가 출연한다.

‘별거가 별거냐’와 ‘졸혼수업’이 케이بل 프로그램인 데 비해 ‘싱글 와이프’는 지상파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21일 첫 방송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았다.

시청률은 3.8%로, 동시간 경쟁하는 MBC 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6.9%~6.2%에 뒤지지만 스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반향이 컸다. 한 주 앞서 시작한 ‘졸혼수업’도 첫회 3.131%, 2회 2.205%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제목과 출연진은 다르지만 콘셉트가 같은 만큼 제작진의 설명도 비슷하다.

‘별거가 별거냐’ 제작진은 “결혼에도 방학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진행한다”며 “이혼 조장이 아닌 부부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졸혼수업’ 제작진은 “올로 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결혼 생활로 잠시 잊고 살았던 각자의 소중한 인생을 찾아보고, 새로운 부부관계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싱글 와이프’ 제작진은 “아내들이 일탈 여행을 떠나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는 동안 남편들은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기회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스타 부부를 내세워야 해 세 프로그램 모두 캐스팅이 프로그램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 요소다. ‘별거가 별거냐’ 제작진은 “출연진 섭외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시즌1이 성공해서 입소문이 난 만큼 시즌2 섭외에 도움을 얻을 것을 본다”고 밝혔다.

사실 별거와 졸혼 예능의 기원을 쫓으면 지난 2월 시작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 찾을 수 있다. 배우 백일섭이 실제로 ‘졸혼’을 선언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타 아빠가 아내 없이 홀로 육아에 도전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있다.

그러나 동시대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등장하면 방송의 다양성 실종, 시청자의 피로 증가 등에 대한 지적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하지만 방송가에서는 당분간 ‘별거 예능’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채널 관계자는 “방송가에서 한번 인기를 끈 콘셉트는 한동안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당분간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듯하다”고 밝혔다.

박정현, 내달 15일 하와이서 결혼

캐나다 교포 출신 대학교수와

재미 교포 가수 박정현(41·사진)이 교제하던 7세 연상의 캐나다 교포 출신 대학교수와 내달 결혼한다.

소속사 캐지팜엔터테인먼트는 “박정현이 7월 15일 하와이에서 3년 반가량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며 “두 사람은 하와이에서 가족과 친지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정현의 예비 신랑은 캐나다 교포로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이들의 교제 소식은 지난 2015년 1월 공개됐다. 박정현은 5월 말 공연차 미국으로 출국한 뒤 결혼 준비를 위해 가족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 박정현의 본가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신랑의 부모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라며 “박정현은 결혼 이후에도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박정현은 캘리포니아대(UCLA) 연극영화과 2학년이던 1996년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1998년 데뷔해 ‘나의 하루’, ‘P.S 아이 러브 유’, ‘편지할게요’ 등으로 인기를 얻으며 R&B 대표 가수로 자리 잡았다.

또 가수 활동을 하면서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창작작문과(영문과)로 편입해 2010년 졸업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SBS ‘동상이몽’ 출연

이재명 성남시장(사진)과 부인 김혜경씨가 SBS TV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에 출연한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동상이몽’ 시즌2는 이 시장 내외를 비롯해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우 추자현 부부, 개그맨 김수용 부부 등 세 가족의 생활상을 관찰해 방송으로 내보낸다.

제작진은 특히 이 시장 부부의 생활을 속속들이 담기 위해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과 공관, 대외 활동 등을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삼양동 SBS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스튜디오 촬영에도 참석, 1회 방송분을 보며 사회자와 문답도 나눴다.

이 시장에 대한 출연 제의는 제작진이 올해 초부터 추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볼



어민주당 내 경선 등이 치러지면서 이 시장이 고사했다. 그러다 경선이 끝난 뒤 제작진이 다시 연락을 취해 출연이 성사됐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수순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좌우충돌 만국유람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UHD 한국의 유산	00 1대 100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냄비반침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충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2017 KBS배 육상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뚝?뚝! 키즈스쿨 55 수빈 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뚝?뚝! 키즈스쿨 55 수빈 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별별머느리(재)	00 MBC 뉴스M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아리라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도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선다큐 2부작 숫자로 보는 기후변화의 진실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냄비반침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최악의 하루)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성난 물고기(재)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청사특집> 생명의 길 데스로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리얼링, 내팔을 일으키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모피와 친구들	-내팔 최후의 오지 불교>
06:00 한국기행(재)	<완득군 잔멸치반, 토마토 냉면장국>	15:45 시계마을 타기독!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방송위의 오지>
07:00 레이디 비그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두다다쿵	고생 끝에 맞이 온다
07:30 로보카 폴리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21:50 EBS 디큐프라이
07:45 출동! 슈퍼홀리	<금슬 좋은 대개 부부 인생영전기>	17:15 엄마 깨투리	<사치스러운 음식, 찌과 고기>
08:00 덩동영 유치원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2:45 글로벌이벤트 찾아 삼만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2:45 메디컬 다크-7요일(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3:35 메디컬 다크-7요일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장수의 비밀(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눈물로 쓴 편지-홍스피스 병동>
09:15 올감한 소방차 레이	14:30 레이디비그	19:00 너티너츠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요술 상자	19:30 EBS뉴스	24:30 한국영화특선
		19:55 극한직업	<웰컴 투 동막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7일(음 윤5월 4일 乙酉)	
子	48년생 일사직 판국이니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된다. 60년생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72년생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84년생 우열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4, 24	午	42년생 쟁취할 수 있겠다. 54년생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6년생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78년생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90년생 느긋함으로 판단한다면 오류를 범한다. 행운의 숫자 : 45, 16
丑	49년생 곤혹스러운 부탁을 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 61년생 이제야 보다 큰 행보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73년생 아무것도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85년생 단안을 내릴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99, 93	未	43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55년생 실행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67년생 제게 맡긴 것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79년생 바로 잡아 두어야 한다. 91년생 상호 보완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30, 10
寅	50년생 분수를 지키는 화도 비켜가는 법이다. 62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닦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86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차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07, 86	申	44년생 혼동하기 쉬우니 이는 길도 물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56년생 금권에 휘둘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68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80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94, 03
卯	51년생 너무나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앞만 보고 달려라. 63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 75년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세이다. 87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4, 49	酉	45년생 지금 추스르지 못하면 더 엉망이 될 수 있다. 57년생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발전적이다. 69년생 어중간하다면 아예 하지 않음만 못하다. 81년생 순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4, 57
辰	52년생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64년생 평소 애 썼던 공이 비상시에는 약이 될 것이다. 76년생 결보기에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막상 임한다면 처리하기가 손쉽다. 88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03	戌	46년생 세밀한 시각으로 정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희망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리라. 70년생 노고를 기증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다. 82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77, 73
巳	53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65년생 긴요한 불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77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89년생 자업자득이요, 사뭇귀정이나 인고응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75, 59	亥	47년생 얼마만큼 치밀한 상황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59년생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 너털웃음이 절로 나는 경사가 보인다. 71년생 저변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83년생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25, 26